

고흥군, 中 프랜차이즈 500만달러 진출

중국 광저우한품유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송귀근 군수 “주춤했던 중국 시장 재도약”

고흥군은 최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중국 광저우한품유한공사(대표 왕종임)와 중국 식품소재시장 진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국 광저우에 소재한 광저우한품유한공사는 수입농수산물 등을 중국 내에 유통하는 식품 유통업체로, 2019년 기준 40억원의 고흥 유자차를 수입해 고흥유자 중국 수출량의 21%를 차지하는 규모 있는 회사다.

군은 사드배치와 코로나 이후 감소세에 있는 대중국 유자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자 과피, 유자씨 등 유자 부산물을 식품소재 시장에 진출하고

B2B 시장 확대를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였다.

앞으로 고흥군과 광저우한품유한공사는 고흥유자 융복합산업화 추진단의 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2년간 500만달러의 수출을 목표로 중국 현지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한 공동 마케팅에 적극 협력 추진할 예정이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신규시장 개척으로 수출 판로의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기존시장을 공고히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주춤했던 중국 시장에 대한 고흥유자 수출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중국 내의 고흥유자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달 10일 대형 온라인 플랫폼인 웨이디엔에 고흥농수특산물 입점협약을 체결

하고, 이번 협약을 연속적으로 체결하며 고흥유자 최대 수출국가인 중국 온·오프라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순천시민들 일본 교토에 있는 ‘귀무덤 봉환 범시민운동’ 전개

순천시민들이 (가칭) 귀무덤봉환추진시민모임을 결성하고, 일본 교토에 있는 ‘귀무덤 봉환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순천시민들이 임진왜란 당시 희생된 조선 양민들의 ‘귀무덤’ 봉환 범시민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일본 교토시에 있는 귀무덤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420여년 전 조선 병사들과 무고한 양민의 코와 귀를 베어가 만들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지시로 조선군과 양민 12만 6000여명의 귀와 코를 베어 소금에 절여 가져간 뒤 매장했다는 것.

국내에서는 1992년 경남 사천시에서 삼중순님 등이 노력해 일본 귀무덤 근처 흙을 일부 가져와 이층 비석을 세우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반환 요구나 운동은 일어나지 않고



왼쪽부터 조사현 귀무덤봉환추진위 공동대표, 선순례 상임대표, 김중윤 공동대표.

선 대표는 “이같은 이유로 교토의 귀무덤을 봉환할 경우 이장의 최적지가 바로 순천으로 지금의 순천

보성군, 28일 대한민국 채동선 민족음악제 개최

한국 대표 지휘자 ‘금노상’ 채동선 음악당에서 다시 지휘봉을 잡는다

보성군은 오는 28일 민족 음악가 채동선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채동선 민족음악제’가 채동선 음악당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족음악가 채동선을 기리는 이번 음악제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이며 독립운동가이고 사상가인 채동선 선생의 음악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조망하는 창작음악제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공연은 정교한 테크닉으로 근·현대의 난곡들을 마력처럼 풀어내는 마에스트로 금노상 교수가 2018년 벨로 백년의 소리 태백산맥향 상곡을 지휘 후 두 번째로 지휘봉을 잡아 음악 애호가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공연 작품으로는 채동선의 가곡 ‘압천’에 의한 Capriccio 바이올린 협연곡(이문석 채동선실내악단전주/조연), 파랑새의 마지막 말(김범기/경상대교수), 피리·장구 관현악을 위한 합주 협주곡(Concert Grosso for Piri, Jangu and Orchestra(정승재/상명대교수/조연), 부용산 가는 길(정현수/전남대교수/조연)과 2018년 작 태백산맥향상곡이 현악 합주곡이 연주된다.

보성=김덕순 기자

순천시, 오는 17일까지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단 모집

대국민 교육 정책 발굴 위해...10대 교육의제 선정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 순천풀뿌리협력센터에서는 대국민 교육 정책 발굴을 위한 국민참여단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국가교육회의에서 총괄하는 이번 국민참여단은 지역의 숙의과정, 온·오프라인 논의와 토론을 통해 국가수준 10대 교육의제 선정을 위해 모집한다.

국민참여단은 오픈채팅 투표를 통해 순천지역의 교육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 오는 25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 1층 3D입체상영관에서 결과 발표를 통해 지역의 교육의제를 제안한다.

이후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12월 17일, 서울코엑스에서 개최하는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모은 국가 10대 교육의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 교육에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17일까지 PC나 모바일을 통해 국가교육회의(<https://eduvisi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국가교육회의는 교육혁신 및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자문기구로, 향후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등의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여수시, ‘장도 예술의 숲’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3년까지 9만2,865㎡에 50억 투입해 다도해정원·난대숲 복원·샴터정원숲 등 조성



여수시는 최근 웅천 예술마루 접견실에서 웅천 장도공원 예술의 숲 조성사업 기본구상(안) 보고 및 자문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있었으며, 이후 현장시찰도 이

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단 위촉과 웅천 장도공원 예술의 숲 조성사업 기본구상(안) 보고 및 자문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있었으며, 이후 현장시찰도 이

어졌다. 시는 조경, 문화예술, 환경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12명의 실시설계용역 자문단을 위촉하고 용역 완료 시까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예술의 숲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장도 예술의 숲은 ‘예술로 치유되는 섬’을 주제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도비 22억 원 포함 총 50억 원을 들여 9만2,865㎡에 다도해정원, 난대숲 복원, 샴터정원숲 등을 조성한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정유재란 마지막 전투지 순천이 최적 장소 강조

일본 교토시에 있는 ‘귀무덤’ 허술하게 방치 상태

있다. 지금은 일본에서도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고, 한국에서도 관심이 사라지면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표준시 동경 127.5도를 기준으로 주권을 회복하지는 의미를 담은 ‘대한민국 경도주권 탑’을 순천만국가정원에 세운 민간조직이 앞장 서 추진하고 있다.

경도주권찾기시민모임측은 (가칭) 귀무덤봉환추진시민모임을 결성중이다. 현재 70여명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선순례 귀무덤봉환추진위 상임대표는 “임진왜란 이후 1597년 재차 침범한 정유재란의 마지막 전투 지역이 순천이었다”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뒤 순천왜성에서 퇴각하던 왜군을 섬멸한 전투가 노량해전으로 이곳에서 7년 전쟁이 막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선 상임대표는 “정유재란은 조금 과장하면 호남과 일본의 싸움이었고, 무덤의 주인공은 전국 각지의 병사와 양민이지만 가장 많은 사람이 호남인이요, 순천 사람이다”고 강조했다.

왜성 일대다”고 밝혔다. 김중윤 공동대표는 “교토에 우리 대표단을 파견해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주한 일본대사관 및 주일 한국대사관, 영사관 등에 우리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귀무덤의 역사적 사실 확인과 반환 요구의 국제법상 타당성 등을 알리는 학술대회 등을 열어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사현 공동대표도 “허술하게 돼 있는 이중 현장을 본 한국인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며 “이 무덤을 무시하듯 안장하는 게 500여년 동안 구천을 떠도는 원혼을 달래는 길이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다”고 힘써 말했다.

이들 회원들은 지난 8월 대한민국의 ‘표준시 주권’을 회복하겠다는 의미를 지닌 경도탑을 전국 유일하게 순천만국가정원에 세웠다. 시민 6000여명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5000만원으로 건립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